

영산강청, 기후에너지전담반 설치...재생에너지 갈등 중재 나서

현장대응단 등 전국 8개 유역에 신설 주민 갈등·전력망 구축 지연 등 해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기후에너지전담반을 운영 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

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지난 11일 해남군 솔라시도 산이정원에서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및 '기후에너지 전담반(TF)'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담반은 영산강청을 포함한 전국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도 신설됐다.

현장대응단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야 속도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력망 구축 지연과 주민 갈등, 복잡한 인허가 문제 등을 현장에서 중재할 전담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구성됐다.

전담반은 지역 갈등을 직접 중재하고 '햇빛·바람

소득마을' 등 맞춤형 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현장 대응 기능을 맡는다.

기후에너지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도 구성돼 매월 점검 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을 점검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햇빛·바람 소득마을' 확산에도 전담반이 투입된다. 영산강청은 입지 발굴과 사업 조성 과정에서 전담반이 적극 지원해 주민 소득 증가와 갈등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산강청은 출범식을 계기로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기후에너지 협의체'도 구성한다. 전력망 갈등 조정과 대안 마련,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의 주민 소통 등을 논의해 사전 예방 중심의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남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4개 기관이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협약에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본보기 확산, 적기 전력망 건설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협력, 유역(지방)환경청 전담반을 매개로 한 지역 단위 갈등 조정 협의체 운영 등이 포함됐다.

영산강청 전담반의 역할과 비전으로 'K-GX를 선도하는 지역 맞춤형 기후·환경·에너지 NEXUS 전략'도 공개됐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역사회 협력 등과 함께 추진될 때 속도를 낼 수 있다"며 "기후에너지 전담반은 지역 재생에너지 기반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노고단'



'천왕봉'

지리산 노고단·천왕봉, 가치 인정... '백두대간 명소'에 올라

산림청, 20곳 선정...책자 발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 우수

지리산 노고단과 천왕봉이 산림청이 선정한 백두대간 20대 명소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지리산 노고단을 비롯,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곳을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리산 주능선의 첫 봉우리로 소개된 노고단(1507m)은 천왕봉(1915m)·반야봉(1732m)과 함께 지리산 3대 봉우리로 꼽힌다. 구례군 산동면·토지면에 걸쳐 섬진강을 끼고 있어 안개와 구름이 자주 물리며, 환상적인 구름바다로 불리는 '노고운해'(지리10경)가 특징으로 제시됐다.

'노고단(老姑壇)'은 '할미당'에서 유래했고, 여기서 말하는 '할미'는 국모신인 서술성모를 가리킨다. 신라 때까지 천왕봉 기슭에서 산제를 올리던 할

미당을 고려 때 이곳으로 옮기며 한자로 굳어졌다는 설명이다.

지리산 천왕봉은 해발 1915m로 한라산 다음으로 높고, 부속도서를 제외한 남한 본토 기준 최고봉으로 소개됐다. 천왕봉을 중심으로 1000m 이상 봉우리들이 잇달아 능선을 이루며 '산국(山國)'이라 불릴 만큼 자연자원이 풍부하다는 평가도 담겼다. 백두대간의 큰 줄기가 남쪽 끝에서 맞닿는 지점이라는 상징성까지 겹치며, 사철 탐방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민족의 영산'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대관령 옛길을 비롯해 태백산 천제단,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 20대 명소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이 1400여km에 걸친 한반도 국토의 골격이자, 한국의 육상생물종 3분의 1 이상이 서식하는 생태계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지난 2003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고 2005년 시행한 뒤 20년째 관리해 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20대 명소'는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완충구역 안에서 봉우리·고개·굴·옛길의 역사·문화·지리·생태 요소를 안배해 선정됐으며 지난 2024년 11월 진행된 행정안전부 '소통24' 국민투표 결과도 반영됐다. 후보지 326개 지명을 대상으로 사전평가를 거쳐 61곳을 추진 뒤 정량·정성평가와 국민투표를 합산해 20곳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책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 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발간이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백두대간의 뛰어난 가치를 널리 알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백두대간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전경.

수열에너지 활용 '체육인재개발원' 주목

장흥에 위치...국내 체육시설 최초로 기존 대비 소비전력 30%이상 절약

최근 장흥에 문을 연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인재개발원)이 국내 체육시설 최초로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여름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수온 특성을 활용하는 수열에너지를 통해 기존 설비 대비 소비전력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16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은 체육인과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복합 교육·연수 시설이다.

대한체육회, 장흥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

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동 추진했으며 국내 체육시설 최초로 다목적체육관 내 친환경 수열에너지 기반 냉난방 시스템이 적용돼 관심을 끌고 있다.

넓은 실내 공간과 이용률이 높은 체육시설 특성상 냉난방 수요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호 영·섬유역본부장은 "체육인재개발원은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량 저감 등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체육기반을 강화해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청정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물 복지 혜택 제공으로 영·섬유역 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단위 '업체→사업장'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할당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이 정밀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배출권 할당 단위를 사업장으로 변경한 이유는 비슷한 형태의 사업장인데 모기업이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유상할당 대상과 무상할당 대상으로 갈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받는 대상을 정할 때 배출권 가격은 고려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배출권 가격을 곱한 뒤 이를 업종별 부가가치로 나눈 값(비용발생도)에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일정 이상이면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배출권 가격은 제외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업종별 부가가치로 나눈 값(탄소집약도)에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을 기준으로 삼는다.

등락이 있는 배출권 가격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등을 바탕으로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 사전 할당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